

박진영, 또 선견지명 'K팝 수출'...美 '원더걸스'→日 '니쥬'

프리 데뷔 시스템으로 인지도 ↑
일본 내 제4차 한류 붐 선두주자
새로운 형태의 K팝 수출 이끌어

JYP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니쥬'가 4세대 K팝 아이돌 그룹 중 새로운 선례가 될지 관심을 끈다. 니쥬는 2일 0시 데뷔 싱글 '스텝 앤드 어 스텝'을 공개했다. 동명의 타이틀곡과 '조이풀' 등 총 4곡이 실렸다. 타이틀곡 '스텝 앤드 어 스텝'은 프리 데뷔곡 '메이크 유 해피'의 작사, 작곡을 맡은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만든 노래다. 오디션을 거친 니쥬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도 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조이풀'은 멤버들의 귀엽고 통통 튀는 매력이 심볼 발휘된 곡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환하게 웃자'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니쥬가 눈길을 끄는 건 박진영과 JYP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월 일본인으로서 구성된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룹이라는 점이다. JYP와 일본 최대 음반사 소니뮤직

이 협업해 멤버 선발부터 트레이닝, 기획, 제작, 매니지먼트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한 '니쥬 프로젝트'를 통해 멤버들을 뽑았다. 1위를 차지한 마코를 비롯 리쿠, 리마, 리오, 마야, 미이히, 마유카, 아야카, 니나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니쥬는 다양한 매력과 색깔을 지닌 그룹 '니지'(Nizi·무지개)와 멤버·팬들을 뜻하는 유(U)가 함께 한다는 뜻이다. 팀명에는 '니드 유(Need You)'의 뜻도 담아 "사람은 절대 혼자서 성공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은 서로가 필요하고 또 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니쥬는 정식 데뷔 전부터 인기 걸그룹 반열에 올랐다. 지난 6월 발표한 프리 데뷔 싱글 '메이크 유 해피'로 신인 입에도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역시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걸그룹 최초 오리콘 스트리밍 수 1억 달성 등 숏한 최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메이크 유 해피' 뮤직비디오는 최

근 개최된 일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재팬 2020'(VMAJ 2020)에서 '베스트 댄스 비디오'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신인으로서 이례적으로 일본 대표 음악 프로그램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이하 엠스테) 엔딩을 장식하는가 하면, 오는 25일 방영되는 해당 방송의 연말 특집 '엠스테 울트라 슈퍼 라이브 2020' 출연까지 확정 지었다. 특히 공영 방송 NHK가 오는 31일 방송하는 연말 대표 프로그램 '홍백가합전' 입성 소식으로도 화제가 됐다. 이날 정식 데뷔 기준 단 29일 만에 '홍백가합전'에 출격,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빠른 출연 기록을 세웠다. 또 30일 TBS에서 방영하는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도 그해 특별한 성과를 거둔 아티스트에 주어지는 특별상 수상을 확정 했다. 인기의 척도인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코카콜라와 현지 편의점계의 대기업으로 꼽히는 로손, 롯데 제과 피츠 썬 등 주요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이다. 지난달 25일 선공개한 '스텝 앤드 어 스텝' 음원도 오리콘, 애플 뮤직, 레코초쿠, 아와, 아마존 뮤직 등 각종 음원 사이트의 차트 1위에 올라, 총 33

관왕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오후 기준 선주문량 37만 장을 기록했다. 니쥬의 인기에는 박진영의 위상도 한몫하고 있다. 박진영 본인이 일본에서 새로운 한류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니지 프로젝트'에서 멘토로 나서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그의 어록(語錄)도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류 수출에 새로운 전환기를 이끌고 있다. 박진영은 지난 2009년 그룹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에 앞장 서며 이 팀의 '노바디'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76위에 걸리는데 기여했다. 항상 대중음악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고민해온 그가 최근 선택한 건 현지화다. 앞서 중국 현지화 보이그룹인 '보이스토리(Boy Story)'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니쥬 역시 현지화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선봉에 선 K팝 한류로 다소 위축돼 보이지만 일본은 음악 시장만 놓고 보면 세계 2위의 거대 시장이다. 일본에 K팝 육성 시스템을 수출, 로열티 등으로 수익을 가져간다면, 새로운 K팝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도 이런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 K팝 가수가 현지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현지에 K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 대기업이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는 것과도 비교되고 있다. 중견 아이돌 그룹 제작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나라별로 인력 이동과 교류의 불안정성에 대해 민감해

진 때라, 현지 인력 위주로 K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니쥬 같은 성공사례는 더욱 주목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진영은 '강남스타일'로 한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싸이 피네이션 대표, SBS와 손잡고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철인왕후' 작가 "신혜선은 '갓혜선'...김정현, 위협적인 배우"

코믹 퓨전 사극 코미디 탄생 예고...12일 첫방송



'철인왕후' 제작진이 주연배우 신혜선, 김정현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며 코믹 퓨전 사극 코미디의 탄생을 예고했다. 오는 12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주말극 '철인왕후'는 드라마 '화랑', '왕의 얼굴', '각시탈' 등을 연출한 윤성식 감독과 '닥터 프리즈너' 박계욱 작가, 영화 '6년째 연애중'을 집필한 최아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박계욱 작가는 "그동안 '영혼체 인지' 설정은 많았지만 성별, 시대, 캐릭터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남녀'의 문제를 역사사지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장봉환의 적응기를 통해 성별을 뛰어넘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이해와 존중, 연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최아일 작가는 "금기와 틀, 편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는 것"에 집중했다"며 "시대와 장소, 지

위에 갇힌 캐릭터들이 그들만의 리그라고 여겨진 '궁'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캐릭터들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설명했다. 최 작가는 "주인공들이 '자신다움을 잃지 않고 금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들만의 리그를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대리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차별 포인트를 전했다. 윤성식 감독은 발칙한 상상력뿐 아니라 중전의 몸매 청와대 세프의 영혼이 깃든 만큼 요리를 둘러싼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볼거리라고 강조했다. 윤 감독은 "대본을 처음 접했을 때 워낙 이해하기 쉽고 재밌었다. 시청자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노력했다"며 "코미디의 특성상 오버액션이 불가피하지만 모든 웃음이 개연성에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상황의 리얼

리티, 비주얼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끈끈한 전우애와 신박한 설정을 오가는 신혜선과 김정현의 코믹 시너지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로 꼽혔다. 윤 감독은 "김소용과 철종의 캐릭터 모두 기존 퓨전 사극에서 본격 없는 신선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라며 "남자의 영혼이 깃든 중전 김소용은 다양한 상황과 감정의 편차를 깊이 있게 표현하면서도 코미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종 역시 코미디뿐 아니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등 복잡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인물"이라며 "어려운 캐릭터들을 120% 소화해준 신혜선, 김정현의 열연 덕분에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두 작가가 배우들에게 신뢰를 보였다. "신혜선은 그야말로 '갓혜선'이다. 사소한 눈짓 하나만으로 모두들 빵 터뜨리는 그의 디테일한 노력은 완벽 그 이상의 '김소용'을 완성했다. 김정현 또한 리액션만으로 신을 장악하는 위협적인 배우다. 날카롭고 코미디를 단 1초 만에 오갈 수 있는, 방·온탕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변화무쌍함을 가졌다." 또 윤 감독은 "배종옥, 김태우, 차정화, 김인권 등 사극의 안정적인 발성은 물론 코미디를 소화할 수 있는 연기력을 장착한 배우들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코미디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승기, '잘할게' 5년만에 가수로...7집 '더 프로젝트'

오는 10일 공개...총 9곡 실려

배우, MC 활동을 병행하는 이승기가 5년 만에 가수로 돌아온다. 2일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승기는 오는 10일 오후 6시 정규 7집 '더 프로젝트'(THE PROJECT)를 공개한다. 총 9곡이 실리는 이번 앨범은 내로라하는 프로듀서진이 합류했다. 지난달 15일 선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한 '뻔한 남자'는 윤종신이 프로듀서를 맡았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잘할게'는 두 번째로 협업에 나선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서로 나섰다. '잘할게'는 중독성 짙은 슬픈 멜로디와 반복되는 가사가 인상적인 록발라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음악적 교감을 나누던 모던록 밴드 '넬'의 김중완과 작업한 '소년, 길을 걷다'도 주목할 만하



다. 우리 모두가 각기 살면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꿈을 좇으며 살고 있다, 울림을 안긴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차세정은 '너의 눈, 너의 손, 너의 입술'을 프로듀싱했다. 꿈에서나마 사랑의 순간으로 돌아가 그때 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

라는 마음을 노랫말에 담았다.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매 앨범마다 담겼던 슬픈 5곡을 리마스터링해 수록했다. 후크는 "그동안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던 이승기가 5년 만에 본업인 가수로 복귀하며 실력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니하니, 1대 김태진X한별 출격...2주간 역대급 특집

9일까지 총 6회 동안 진행

EBS 대표 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가 2주에 걸친 역대급 특집으로 방영된다. 2003년 9월 시작한 '보니하니'는 16년 2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MC인 보니와 하니는 '초통령'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현재 보니하니는 18대 보니인 신인 아이돌 '엘라스트' 원준과 15대부터 하니를 맡았던 채연이 이끌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보니하니의 첫 문

을 연 1대 보니하니 김태진과 한별이 진행을 맡는다. 2003년부터 방영했던 역대 코너들을 소개하고 그동안 거처간 보니하니들의 활약상도 짚어볼 예정이다. 제작진은 "특집인 만큼 재미있고 유익한 퀴즈와 더불어 다양한 참여 선물도 준비돼 있다"며 "2일부터 4일까지 김태진과 한별이 진행을 맡고 7일부터 9일까지 진행을 맡을 깜짝 놀랄만한 보니하니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보니하니의 이번 특집은 2일부터 9일까지 총 6회 동안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 EBS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V조선, 세번째 트롯 오디션 '미스트롯2' 17일 첫 방송

5개월 동안 2만명 넘게 지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 17일 처음 방송된다. 17일 오후 10시로 첫 방송을 확정 한 '미스트롯2' 제작진은 "더욱 막강해진 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장한 참가자들이 거리낌 없이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라며 "트롯을 단숨에 대한민국 대세 장르로 이끈 제작진들의 노하우를 총 동원해 또 한 번 원조 트

롯 오디션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2일 밝혔다. 이 시간에 방송되던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방송시간은 2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로 바뀐다. '미스트롯2'는 '미스트롯1'과 '미스터트롯'에 이어 TV조선이 세 번째로 내놓는 신개념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에는 5개월 동안 2만 명이 넘게 지원해 전 시즌을 통틀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회가 넘는 제작진 예심을 통과한 미모, 실력, 흥, 끼를 두루 갖춘 참가자들이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MC 김성주와 특별 마스터를 포함해 17명이 출연한다. 기존 마스터 장윤정, 조영수, 진성, 신지, 김준수, 봄, 장영란은 물론 '미스터트롯' 톱6, 가수 박선주, 뮤지컬 배우 손준호, 트로트 가수 김용임, 배우 김영욱이 새로 합류한다.

에스파 '데뷔 16일째...SM 중앙계단에 뮤비 나올때 실감'

그룹 '에스파'가 라디오에 처음 출연해 데뷔 소감을 밝혔다. 에스파는 2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DJ 김영철은 "데뷔를 언제 실감

하니"고 물었다. 이에 카리나는 "11월 17일에 데뷔해서 오늘 16일째다. 저희 회사에 중앙계단이 있는데 항상 선배님들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데 어느 날 연습을 하러 갔더니 우리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나오더라"라며 이때 데뷔 실감을 했다고 답했다. 에스파는 한중일 멤버로 이뤄진 그룹이다. 한국인 카리나와 원더, 일본인 지젤, 중국인 닝닝으로 이뤄졌다.